

John 7

요한복음 7

Tape #8075

By Chuck Smith

Let's turn now to the seventh chapter of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Back in the fifth chapter of the gospel of John, Jesus was in Jerusalem and He went to the pool of Bethesda where there were many sick people gathered around the pool of Bethesda because of the healing powers that were manifested on the first one who could get into the pool after the waters have been troubled. And Jesus saw a man who was lying there who had been there for a long time and He asked the man if he wanted to be healed. And the man told Jesus the reasons why he wasn't healed. When the waters were troubled, as he was struggling to get into the waters someone always got there ahead of him. And Jesus told the man to take his cot and to go home. And immediately he was healed and he took his cot and started home.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던 중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할 때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치료의 권능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누워 있는 한 남자를 보셨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물이 동할 때 그가 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명하셨다. 즉각적으로 그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되었으며 자기 자리를 들고 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The problem was that it was the sabbath day and when the Pharisees saw him carrying his cot on the sabbath day, they asked him why he was doing that which was not lawful to do; bearing a burden on the sabbath day. And he said, The One who healed me is the One who told me to take my cot and go home. They said,

Who was it? He said, I don't know. Later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told him not to sin anymore lest something worse would happen to him. And then he went to the Pharisees and said it was Jesus who healed me and told me to carry my cot. 문제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점이다. 그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왜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고쳐주신 이가 나보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 고 물었다. 그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치료받은 사람을 만나시게 되었는데,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그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신 이는 예수님이셨다고 말하였다.

So that began the conspiracy to kill Jesus. It was determined then that He must be put to death. Throughout the book of John, Jesus keeps referring to His hour which He said had not yet come. And as He was making reference to this, it is obvious that Jesus has a timing, schedule that He is working by. That of the Father's. The perfect time for Him to be presented as the Messiah of Israel, the time in which He is to offer Himself as a sacrifice for sins. So because this conspiracy to put Him to death has developed in Jerusalem by the religious leaders, Jesus wasn't going to Jerusalem for a period of time. Actually, the time differential between chapter five and chapter seven is about two years. And Jesus is avoiding the confrontations in Jerusalem because they are still smarting over the fact that He commanded a man to carry his cot on the sabbath day. 이리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었다. 그 때부터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들은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자신의 한 때에 대해 언급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는 시간표가 있어서 그것에 준거하여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주신 시간표였다. 그분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나타내시기에 완벽할 정도로 좋은 시간,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실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한 동안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않으시려 하셨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과 7장 사이의 시간 격차는 대략 2년에 해당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대치하게 되는 일을 피하셨다. 안식일에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건에 대해 그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Totally disregarding the fact that the man who had been lame for years was healed, they were upset because it was on the sabbath day that the miracle was wrought on this man. So, 그들은 오랫동안 절름발이로 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도외시한 채, 오직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만 격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Jesus was not walking [according to John here] in the Jewry, because they were seeking to kill Him (7:1).

After the experience of the healing of this man, Jesus remained in the area of the Galilee: ministering up in the Galilee region and was not going down to Jerusalem because of this conspiracy to put Him to death and it can't happen before God's ordained time. 이 사람을 치료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거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봉사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죽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 이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Now the Jews' feast of tabernacles was at hand (7:2).

The feast of tabernacles took place in the seventh month of the Jewish calendar. The Jewish calendar began with the month of April, that was the first month of their religious calendar. The seventh month was in later September or early October, it varied from year to year because they went by the lunar calendar. But we read in Leviticus chapter twenty-three concerning this feast of the tabernacles. If you want to turn to Leviticus twenty-three, in verse thirty-three, The Lord spoke unto Moses saying, Speak unto the children of Israel, saying, The fifte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shall be a feast of tabernacles for seven days unto the LORD. On the first day shall be a holy convocation: you shall do no servile work therein. Seven days you shall offer an offering made by fire unto the

LORD: on the eighth day shall be a holy convocation unto you; and you shall offer an offering made by fire unto the LORD: it is a solemn assembly; and you shall do no servile work therein. These are the feasts of the LORD, which you shall proclaim to be holy convocations, to offer an offering made by fire unto the LORD, a burnt offering, and a meat offering, a sacrifice, and drink offerings, every thing upon his day: Beside the sabbaths of the LORD, and beside your gifts, and beside all your vows, and beside all your freewill offerings, which you shall give unto the LORD. And also in the fifte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when you have gathered in the fruit of the land, you shall keep a feast unto the LORD seven days: and on the first day shall be a sabbath, and on the eighth day shall be a sabbath (Leviticus 23:33-39).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에 지내게 되어 있었다. 유대인 달력은 4월에 시작이 되는데, 곧 그들 종교력의 시작이었다. 유대력 제7월은 우리의 달력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해당하였다. 그들은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기는 매년 바뀌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칠 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팔 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월 십오일부터 칠 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팔 일에도 안식할 것이요”(레 23:33-39).

Notice that the feast is in conjunction with the feast of tabernacles. That is, it's to begin also on the fifteenth day and thus, a double feast. This second feast is often called the feast of in-gathering or the feast of harvest and it is sort of similar to our Thanksgiving. That is, giving thanks unto the Lord and rejoicing in that the harvest has been brought in. 40 And you shall take on the first day the

boughs of goodly trees, branches of palm trees, and the boughs of thick trees, and willows of the brook; and you shall rejoice before the LORD your God seven days. 이 절기는 초막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다시 말하면, 이 절기가 15일에 시작되게 되어 있었으니, 말하자면 이중 절기가 되는 셈이다. 두 번째 절기는 종종 수장절 즉 수확의 절기로 불렸다. 일종의 추수 감사절인 셈이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 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So the feast of tabernacles was a feast of rejoicing. Feast of thanksgiving and rejoicing. And you shall keep it a feast unto the LORD for seven days in the year. It shall be a statute for ever in your generations: you shall celebrate it in the seventh month. And you shall dwell in booths [or succoths; and thus it is also called the feast of Succoth because of these little booths or tabernacles]; and all that are Israelites born shall dwell in these booths: And your generations may know that I have made the children of Israel to dwell in booths, when I brought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I am the LORD your God. And Moses declared unto the children of Israel the feasts of the LORD (Leviticus 23:41-44). 그러므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였다. 감사의 절기요 즐거움의 절기였다. “너희는 매년에 칠 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칠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칠 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레 23:41-44).

Now as tradition developed concerning this little booths that they would build, they were little lean too's that they built next to their houses. And they developed sort of patterns or plans for these and according to the patterns, you would make them out of palm thatches but you would leave enough space. You had to have more shadow than sun. In other words, as you build it you had to let the sun shine through but there had to be more shadow than sun. And you couldn't make it so

thick that at night you couldn't see the stars. You had to be able to see the stars up through the thatches at night. And the family would move out during this eight-day period of the feast and live in these little booths. At night when the children would be lying there and they would say, Daddy, I see a star up there. The daddy would say, Our fathers lived in the wilderness under the stars for forty years and God preserved them and kept them that forty years. And so there were all of these beautiful things to remind them of God's preservation of the fathers through the journeying in the wilderness for a forty-year period of time. 이제 이 절기와 관련하여 작은 오두막에 대한 전통도 개발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기 집 옆에다 오두막을 짓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그 오두막을 위한 모형과 양식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 야자수 갈대로 오두막을 짓곤 했으나 자리를 넓게 잡지는 않았다. 햇별이 드는 곳보다는 그늘 진 곳을 더 많이 두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초막을 지을 때 햇별이 들게 해야 하지만 햇별보다는 그늘이 더 지게 만들어야 했다는 말이다. 또한 초막을 너무 두껍게 만들어 밤에 별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밤에는 벗짚 사이로 별들이 보이도록 만들어야 했다. 가족들은 이 8일 축제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작은 오두막에 거하곤 하였다. 밤에 자녀들이 거기에 누워 자면서 말하기를 아빠, 저기 별들이 보이네요 했다.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응수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별들을 헤며 거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단다. 그렇게 하여, 초막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상기시키곤 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As time went on and the temple was built in Jerusalem, they began to have ceremonies concerning the water. And a priest would go down and fill this little silver pitcher with water. Other priests would go and fill water jugs but the high priest would take this little silver pitcher of water and pour it on the altar. It was a symbol first of all of the water that came out of the rock, but also it was sort of a prayer and a looking forward to the rainy season now, in order that the land may be watered by God during the winter months. Sufficient rain to fill the streams and the cisterns and all in order that they might survive through the next summer.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물에 대한 의식도 개발되어졌다. 한 제사장이 내려가서 작은 은주전자에다 물을 채웠다. 다른 제사장들도 가서 물을 채우곤 하였으나, 대제사장만이 작은 은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다 물을 부을 수 있었다. 그것은 우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우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표출된 것이기도 했다. 겨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적셔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충분한 비가 내려서 시내와 우물 같은 것들을 채워야만 그 다음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d so there was quite a ceremony and the people would sing Psalm 115 to 118 as this water was being poured and they were asking for God's salvation. Hosanna in Psalm 118. So it was quite an interesting ceremony. 그런 식으로 성대한 의식이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물이 부어질 때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를 낭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곤 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호산나를 부르기도 했다. 그것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의식이였다.

The water would be poured down on the pavement there in the temple where the people would then sing praises unto God. Great rejoicing. It was a time of rejoicing in God's goodness and in God's benefits to them.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 물을 성전 바닥에다 붓곤 했다. 그 절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심에 대해 즐거워하는 시기였다.

But because the eighth day was a sabbath day, holy convocation, they could not bear any burdens. Thus there was no procession to the pool of Siloam. No water being poured out and that also was significant in acknowledging that God kept His promise. He brought them into the land, the land that was well watere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그러나 제8일은 안식일이요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으므로 그들은 어떤 짐도 질 수가 없었다. 물론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행진도 없었다. 물을 붓는 일도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면에서 또한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이 풍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이다.

The feast of tabernacles was one of the three major religious feasts that was compulsory for the adult males living within a radius of twenty miles of Jerusalem

to attend. Three times a year, all of the adult males within a twenty-mile radius of the city of Jerusalem were to present themselves to God. Those that lived outside of the twenty-mile radius came as often as they possibly could. 초막절은 예루살렘에서 반경 20마일 안에 사는 남자 성인(成人)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삼대 절기 중의 하나였다. 일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20마일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 성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보여야 하였다. 20마일 밖에 사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주 그 절기에 참석하면 되었다.

Josephus tells us that there were millions of people that would often gather during these feasts in Jerusalem. The city would overflow with the pilgrims that would come. The feast of passover which is in the first month of the Jewish calendar, beginning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month. The feast of Pentecost that was fifty days after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hich was at the end of the feast of the passover. They would count fifty days to the feast of Pentecost or the feast of first fruits. And then the third major feast was the feast of tabernacles.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축제 기간 동안에는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곤 했다고 한다. 그 도시가 온통 순례객들로 붐비곤 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시작되는 절기였다. 오순절은 유월절 축제가 끝날 무렵 시작되는 무교절 이후 50일 동안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50일 간이나 오순절 즉 초실절을 지키곤 했다. 그런 다음에 오는 주요 3대 절기의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었다.

And now the feast of tabernacles is coming up. Now this is the final year of the ministry of Jesus. In fact, the feast of tabernacles is here taking place just about six months before Jesus is to be crucified. So as we come into the seventh chapter, we are entering into the last six months of the ministry of Jesus prior to His crucifixion. 그런데 이제 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때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해였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대략 6개월 전에 시작된 절기였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개월 간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다.

His brothers [that is, the half brothers, the sons of Mary and Joseph who still at this point did not believe His claims] said unto him, Depart from here, and go into Judaea, that your disciples also may see the works that you do (7:3).

Go on down to Jerusalem, to the feast. Do Your miracle things down there so that Your disciples who are down there might see them also.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절기에 참석하소서. 거기 가서서 기적을 행함으로 거기에 거하는 당신의 제자들도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소서.

For there is no man that does these things in secret, who seeks to be known openly. If you do these things, show yourself to the world (7:4).

They are suggesting that Jesus go down there and demonstrate His powers. Let them see it because if You're wanting to be known, You don't hide in a corner. You do things out in the open. But John tells us, 그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분의 권능을 현시(顯示)해 보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께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로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소서. 시골구석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For neither did his brethren believe in him. Then Jesus said unto them, My time is not yet come: but your time is always ready (7:5,6).

Throughout John, Jesus is referring to the hour has not yet come and to the time that has been appointed. But here this is not the same Greek word. Jesus knew that the hour of His being offered as a sacrifice for sin was established and set by God. And His hour of being revealed as the Messiah to the nation, that was a time, a set time appointed by God. And as we have pointed out in going through the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those of Daniel chapter nine, where Daniel tells the very day the Messiah will come. From the time the commandment goes forth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to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 Prince will be seven sevens, and sixty-two sevens (Daniel 9:25), or 483 years. Time had not yet come. The word is hora, from which we get our word hour. It's h-o-r-a in the Greek. We get our word, hour from that. The hour has not yet come.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 지정된 그 시간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동일한 희랍어가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 제물로 바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이 메시아로 세상에 알려질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죽 살피는 동안 주목하였듯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날 날에 대해 말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날부터 임금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7주와 62주가(단 9:25) 즉 483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다. 그 시간을 가리키는 희랍어 hora는 오늘날의 영어 hour(시간)가 유래된 단어이다. 그 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This particular word here is kairos, and it isn't an appropriate time. He's not saying that He's not going to go down to Jerusalem but you go ahead and go. You go ahead. But it isn't an opportune or appropriate time for Me right now. He will be coming a little later. He will be coming after the feast is already in progress. But He won't be going down in advance. He said, 여기 요한복음에서 특수하게 쓰인 단어는 kairos인데, 적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분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가라 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가라. 하지만 내가 지금 가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아니로구나. 그분은 약간 늦게 가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분은 절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가시겠다는 의미였다. 미리 내려가지지는 않겠다고는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The world cannot hate you (7:7);

He recognized that there was this smoldering hatred for Him in Jerusalem going back to the healing of this man at the pool of Bethesda. He realized that this was still smoldering and that they hated Him. And so He said, The world cannot hate you,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증오가 들끓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사람을 고쳐준 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아직도 그들은 자신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지는 않을 것이다.

but it does hate me, because I testify of it, that the works thereof are evil (7:7).

Things haven't changed. The world still hates Jesus today because He testifies against the works that they are evil. People don't want to be rebuked for sin. They want their sin to be accepted. They want you to be tolerant of their evil. They want to sin with no rebuke whatsoever. And Jesus said, It hates me because I testify. I tell them that their works are evil. They didn't like that. And so,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 세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증오한다. 그분이 악한 일들에 대해 나쁘다고 증거 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악을 눈감아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꾸짖는 자가 없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증거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You go up to the feast: I'm not going up yet unto this feast: for my time [again kairos] is not yet full come (7:8).

The opportune moment. 여기서 말하는 '때'는 적절한 시각을 말하는 것이다.

When he had said these words unto them, he stayed still in Galilee. But when his brethren were gone up, then went he also up unto the feast, not openly, but as it were in secret (7:9,10).

Sort of slipped in without any fanfare into the city. 말하자면, 화려한 광파르 없이 그 도성으로 조용히 들어가신 것이다.

Then the Jews sought him at the feast, and they said, Where is he? And there was much murmuring among the people concerning him: for some said, He is a good man: others said, No; he deceives the people. Howbeit no man spoke openly of him because of the fear of the Jews (7:11-13).

The Jews had already determined that if any person claim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d be put out of the temple. They wouldn't be able to worship in the temple if they claim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Interesting that to the present day, if a Jew claims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y are not considered a Jew. They will not allow a Jew to immigrate to Israel who claims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y won't allow them what they call the Alyah, the immigration into Israel. Though they may have Jewish mother, Jewish father, all the way back.

They say, No, you're not a Jew if you believe Jesus is the Messiah. You can't become a citizen of Israel. And so things haven't changed that much in 2,000 years. Here they had established, if anybody said Jesus was the Messiah, they would be put out of the temple.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성전에서 쫓아내리라고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까지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위 '알라'(이스라엘로의 이주)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합의한 바에 의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성전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There was a lot of whispering kind of thing going on concerning Jesus. Some saying, He's a good man. And others saying, Oh no, He's a deceiver. Interesting, isn't it, how that people have to be opinionated concerning Jesus. You can't be neutral. He made too many radical claims that completely removed any attempt at neutrality concerning Him. His claims were so radical that He was the Son of God, that He was sent by God. That He was the only way by which a man could come to God. That He wa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if you believed on Him, you would never die. Radical claims that do not allow any neutrality concerning Him. You either believe or you don't. 예수에 대해서는 갖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니, 흥미롭지 않은가. 여러분은 중간 입장을 취할 수가 없다. 그분은 급진적인 주장을 너무도 많이 하셨으므로, 그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그 어떤 의도도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분의 주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자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도 말씀하셨으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고도 주장하셨다. 그런 과격한 주장들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께 대해 결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 그분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

He was either a good man or He was a deceiver. He can't be both. He was either the Son of God or He wasn't the Son of God. He can't be both. And so there was a division as there always is concerning Jesus. And today the world is divided in their opinions concerning Jesus. And tonight, all of us have an opinion concerning Jesus. We're not neutral. We either believe that He is the Son of God, the Savior of the world or you have to believe that He is a fraud, a deceiver. You're with the crowd that says, Oh, no, He deceived the people. 그분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기꾼이었다. 둘 다가 될 수는 없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둘 다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늘 그래 왔지만, 그분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오늘밤 우리 모두도 예수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립지대에 설 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그분이 험잡꾼이며 사기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사람들을 속였다고 말할 것이다.

You see, Jesus said, If you're not for Me, you're against Me. He didn't leave you any neutral ground. You can't say,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I haven't decided yet just what I do believe. No decision is a decision, No. It's either positive or negative. You can't be neutral concerning Jesus. And so there was the division. Some say He's a good man. Others said, No, He deceives the people.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중립지대를 허락지 않으셨다. 여러분은 나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결정은 긍정적인 것이 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되든지 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분쟁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이 사람들을 속인다고도 했다.

Now about the middle of the feast (7:14)

Jesus waited as the feast was now in progress, about the middle of the feast, 예수님은 절기가 많이 진척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절기가 절반쯤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He went up into the temple, and He began to teach. And the Jews marvelled, saying, How knoweth this man letters, having never learned (7:14,15)?

How does He know all of these things and He has never been to the schools or sat under the Rabbis? In Jerusalem, there were those appointed Rabbis and the students would come and they would learn by the Rabbis. But the Rabbis had a very unique way of teaching. They would always quote the commentaries of other Rabbis. They would bring up an issue. Say that you're part of the Yeshiva. I'm a Rabbi. So I would bring up an issue of what constitutes bearing a burden on the sabbath day. I give it over to you and you have to start discussing among yourselves, Just what does constitute bearing a burden on the sabbath day?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셨을까? 그분은 학교에 가신 적도 없고 랍비 문하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랍비로 지정된 사람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들에게로 와서 배우곤 했다. 그 랍비들은 매우 독특한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랍비가 가르친 말을 인용하곤 했다. 그들은 하나의 문제를 제시하곤 했다. 여러분이 예시바(Yeshiva)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자. 나는 랍비라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를 던지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We know the law says that you're not to do any labor or to bear any burden on the sabbath. So what is a burden? If you have false teeth, would it be a burden to put your teeth in on the sabbath day? And so you start going through all the commentaries and you would study the commentaries. You'd say, Well, Rabbi Hallel says that, and Rabbi Shima says this. And you'd always be quoting the

Rabbis. No one would speak with authority. They would only speak as they would quote what a different Rabbi had said. And that was the way they studied. That was the way they learned. The mind sharpening mind. Iron sharpens iron. 우리는 율법이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어떤 짐도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무엇이 짐이란 말인가? 여러분이 틀니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안식일에 틀니를 끼는 것이 일이 된단 말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주석서를 뒤져가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씨름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랍비 힐렐은 이렇게 가르쳤고 랍비 시마는 저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은 언제나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랍비가 말한 내용을 인용하는 한에서만 말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이 배우는 방식이었다. 이 사람의 이론이 저 사람의 이론을 더욱 날카롭게 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다.

They're amazed at Jesus. When He gave the sermon on the mount, they were amazed because He spoke not like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who just were always quoting the other Rabbis, but he said, He speaks with authority. Now as He's teaching there in the temple, they're amazed. They know that He hasn't sat under any Rabbi. How is it that He knows the scriptures so well? How is it that He has all of these lear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How is it that He speaks with such authority concerning the word when He didn't sit under Gamaliel or any of the other Rabbis that happened to be in Jerusalem at that present time. Gamaliel being the most renowned of them all.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그분의 산상보훈을 듣는 순간 참으로 놀랐다. 그분은 언제나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여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도 그들은 적지 않게 놀랐다. 그들은 그분이 어느 랍비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저가 어떻게 해서 성서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저가 어디서 이 모든 학식을 얻었으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서를 알게 된 것일까? 저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을 가말리엘이나 다른 랍비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데도,

말씀에 대해 어떻게 저런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였다.

Jesus answered them, and said, My doctrine is not mine, but his that sent me (7:16).

In other words, I haven't sat under any Rabbi. I've sat under the Father. He's the One who has taught Me. My doctrine isn't mine, but it is His who sent Me.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다: 나는 랍비에게서 배운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배웠다. 그분께서 나를 가르치신 분이다. 나의 교리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If any man will do his will, he will know of the doctrine, whether it be of God, or whether I speak of myself (7:17).

If you really do the will of God, you'll know that what I'm telling you is from God. 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행한다면, 너희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He that speaks of himself speaks for his own glory: but he that seeks his glory that sent him, the same is true, and no unrighteousness is in him (7:18).

I speak with the authority of the Father who has taught Me or the things that I'm teaching. 나는 나를 가르치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내용은 그분이 가르쳐준 것이다.

Did not Moses give you the law, and yet none of you keepeth the law (7:19)?

What an accusation to the Pharisees who spent their lives endeavoring to keep the law. But listen to the honesty of Peter when they are trying to determine in a first church council of what obligation the Gentile believers had to the law of Moses, Peter said unto them, Why should we put on the Gentile believers, a yoke of bondage that neither we nor our fathers were able to bear (Acts 15:10)? Why should we put that on the Gentiles? So Peter confessed, We haven't been able to keep the law. Jesus is making this accusation of them. Did not Moses give you the law, yet none of you keep the law? 율법을 지키려 애쓰면서 평생을 살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이 얼마나 참담한 비난이란 말인가? 하지만 교회사에 나오는 최초의

공회(公會)에서 베드로가 정직하게 말한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 때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도 감당하지 못했던 짐을 우리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왜 지워야 하는가(행 15:10)? 그런 짐을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는가? 여기서의 베드로 고백과 같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소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So why are you going about to kill me (7:19)?

Jesus knew that there was this conspiracy. He had been avoiding the area of Judaea because of the conspiracy to kill Him because He had healed the man on the sabbath day. So He said, You don't keep the law, so why are you going about to kill Me? Their accusation was He violated the law of Moses. He healed on the sabbath day and told the man to carry his cot on the sabbath day. 예수께서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이 유대 지역을 기피하신 것은 자기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치료한 것으로 인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희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나를 잡아죽이려고 애쓰느냐? 그들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내용이었다. 안식일에 그분이 한 사람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명하셨다는 것이다.

The people answered and said, You have a devil [you're crazy]: who's going about to kill thee (7:20)?

They didn't know of the conspiracy of the religious leaders that He must be put to death. They didn't know of it. So when He says, Why are you going about to kill Me? They said, Who's trying to kill You? You're crazy.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 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고 물으셨을 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은 미쳤나 봅니다 라고 응수했던 것이다.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I have done one work, and you all marvel (7:21).

That was the work of the healing of the man at the pool. 이것은 연못가에서 한 사람을 고친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Moses therefore gave unto you the law of circumcision; (not because it is of Moses, but of the fathers (7:22);)

That is, circumcision antedated Moses. The rite of circumcision was given to Abraham and it was the sign of the covenant that God had made with Abraham that God would make of him many nations and the covenant of the special nation through Isaac shall thy seed be called (Genesis 21:12). Circumcision was the sign of the covenant. It was not of Moses, it preceded Moses. It went actually back to Abraham, the fathers. 다시 말하면, 할례는 모세 이전에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다. 할례라는 의식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셨으며, 그 특별한 나라의 씨를 이삭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다(창 21:12). 할례는 그런 언약의 징표였다. 그것은 모세 때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모세 이전에 주어진 의식(儀式)이었다. 사실상 그 기원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조상들에게로 거슬러올라가는 것이었다.

and you on the sabbath day circumcise a man (7:22).

I've healed a man on the sabbath day. You've mutilated a man on the sabbath day in circumcision. 나는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할례를 한답시고 안식일에 사람의 양피를 베지 않느냐.

If a man on the sabbath day receive circumcision, that the law of Moses should not be broken (7:23);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it was on the eighth day that the male child was to be circumcised. And of course, many times the eighth day would fall on a sabbath day. But because the law of Moses was to circumcise on the eighth day, they went ahead on the sabbath day and would circumcise the male child. So if a man on the sabbath day receive circumcision, that the law of Moses should not be broken;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내아이는 생후 제8일에 할례를 받아야 하였다. 물론 그 제8일은 안식일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제8일에 할례를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안식일에도 나아가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거늘,

are you angry at me, because I have made a man every whit whole on the sabbath day? Then said some of them of Jerusalem, Is not this he, whom they seek to kill (7:23,25)?

They began to realize, Yes, this is the One they've been talking about. They were going to kill Him. But Jesus said,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바로 이 사람이 저들이 늘 말하던 그이로구나. 저들은 이 사람을 죽이고자 찾고 있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Judge not according to the appearance (7:24),

When Samuel went down to the house of Jesse at the commandment of God to anoint one of the sons of Jesse to be the king over Israel, as Jesse brought in his sons the first, Eliab, handsome, good looking, strong, well-built and Samuel thought, Oh yes. Surely this is God's chosen. But God said to Samuel, Man looks on the outward appearance and God looks on the heart. Jesus is saying, Don't judge according to appearance. How many times we're judging according to appearance. Wrong.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내려가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하였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들였는데 장자 엘리압은 외모가 출중하고 건장하고 체격이 든든한 사람이었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 그렇구나. 분명히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는지. 그것은 그릇된 태도다.

but judge righteous judgment. Then said some of them of Jerusalem, Is not this he, whom they seek to kill? But, look, he's speaking boldly, and they're not saying anything to him. Do the rulers know indeed that He is the very Messiah? Howbeit we know this man whence he is: when the Messiah comes, no man knows from whence he is (7:24-27).

They thought that the Messiah was just going to suddenly, miraculously appear. And even today they believe that concerning the Messiah, just one day he's going to appear on the scene, recognized by all to be the Messiah. And so the fact that they knew Him, they knew His mother and father, they knew Him from His boyhood in Nazareth, they were rejecting Him as being the Messiah. Maybe the rulers thinking, But we know Him, we know more than they do about Him. 사람들은 메시아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믿는다: 어느 날인가 그가 갑자기 무대에 등장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분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부모를 잘 알고 있던 그들은, 나사렛에서 자란 그분의 유년 시절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집권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잘 알아.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어.

Then cried Jesus in the temple as he taught, saying, You both know me, and you know whence I am: and I am not come of myself, but he that sent me is true, whom you don't know (7:28).

Yes, you know Me. You know I'm from, I grew up in Nazareth. And you see, they had come for the feast. They were all there and neighbors from Nazareth, neighbors who had watched Him grow up, fellows that maybe grew up with Him. They had a difficult time accepting Him as the Messiah and Jesus said, Yes, you know Me. You know whence I am: but I've not come of myself, He that sent Me is true, whom you don't know. You don't know God.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나사렛 출신이며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무리였다. 그들은 나사렛으로부터 온 이웃들이었을 것이며 예수께서 성장하신 과정을 지켜보아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분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진실하신 분이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But I know him: for I am from him, and he has sent me (7:29).

Pretty radical. He's a good man or He's a deceiver. Is He deceiving them when He declares to them, I know the Father for I am from Him and He has sent Me? 참으로 과격한 언사이다. 그분은 선한 분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라고 그분이 선언하셨을 때 그분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을까?

Then they sought to take him: but no man laid hands on him, because his hour was not yet come (7:30).

Now we have the hora again, and this is referring to that precise hour that God had established for the offering of the sacrifice of His Son for sins. 여기서 다시 hora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정해 놓으신 시간을 가리킨다.

And many of the people believed on him, and said, When the Messiah comes, will he do more miracles than these which this man has done (7:31)?

Look at all of the miracles. Will the Messiah do more miracles than these? 이 모든 기적들을 보라. 메시아가 온다한들 이보다 더한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The Pharisees heard that the people were murmuring such things concerning him; and the Pharisees and the chief priests sent officers to arrest him. Then said Jesus unto them, Yet a little while am I with you, and then I shall go unto him that sent me (7:32,33).

Going to be with you for just a little while more. And then I'm going to go back to Him who sent Me. 나는 너희와 조금만 더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You will seek me, and you will not find me: and where I am, you cannot come (7:34).

I'm going. You're going to seek Me, you won't find Me. This He is saying to the people. To His disciples, you remember in the fourteenth chapter, He said,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ohn 14:1-3). 나는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집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사실대로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들일 것이다. 그리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할 수 있게 할 것이다(요 14:1-3).

To these people He's saying, Where I'm going you can't come. To His disciples, He said, Where I'm going, I'm going to come and get you. I'll prepare a place for you and then I'll come and get you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와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한 다음에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거하는 곳에서 너희도 거하게 될 것이다.

So the Jews said among themselves, Where's he going, that we can't find him? will he go to the dispersed among the Gentiles (7:35),

Is He going to head out from here, maybe go to Greece? And to the dispersed Jews that are in Rome and is He going to go out to the nations to preach to the dispersed? 아마도 저 분이 이곳으로부터 빠져나가 그리스로 가려나 보다. 아니면 로마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로 가려는가?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려는가?

What does He mean, Where I'm going, you cannot come (7:36)?

And then in the last day, that great day of the feast (7:37),

This would be the eighth day, the day of the holy convocation, the sabbath day, 이 날은 제8일 즉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이였다.

Jesus stood and cried, saying,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unto me, and drink (7:37).

He's talking about the deep spiritual thirst, universal thirst in the heart of every man for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Down deep inside we need God. Our lives cannot be whole or complete without God. 그분은 지금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적 갈증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하거나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Man exists on three levels: body, soul and spirit. He is an inferior trinity. Made in the image of God who is a superior trinity: Father, Son and Spirit. Man was created a spirit being. Living in a body, fleshly body, possessing a consciousness. The consciousness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spirit. And thus, man lived in conscious communion and fellowship with God because the spirit was uppermost; spirit, soul, body. The body was subject unto the spirit. Man did not live controlled or dominated by the flesh but controlled and dominated by the spirit and thus lived in fellowship with God. 사람은 세 가지 차원에서 존재한다: 몸, 혼, 영. 인간은 예컨대 삼위일체를 닮은 피조물인 것이다. 삼위일체 원조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이다. 육신적 몸 안에 사는 동안 사람은 의식(意識)을 유지한다. 의식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교제와 교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영이 가장 우월하고 다음이 혼과 몸의 순서이기 때문이다. 몸은 영에게 복종한다.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영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야만 살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수가 있다.

It was through the fall when man obeying the body appetites, eating of the forbidden fruit, because of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 and the pride of life. For that fruit was delicious, it was beautiful to look upon. And it was desired to make him as wise as God. And yielding to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 man became dominated by the flesh. The spirit died. God said, In the day

you eat it, you'll surely die (Genesis 2:17). His spirit died, he lost that consciousness of God's presence. As his body was now mastered by his fleshly desires. And he began to live and walk after the flesh. Dead in his trespasses and sins. Alienated from God. Without God and without hope and without Christ in this world. 인간이 몸의 욕구에 복종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는 타락하게 되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때문이었다. 그 열매는 달콤했으며 보기에 아름다웠다. 너무 탐스러워서 사람을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의 영은 죽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니라(창 2:17). 그리하여 그의 영은 죽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몸은 육신의 소욕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는 육신을 좇아 살며 거동하기 시작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도 없게 되었다.

The mind of man now dominated by the fleshly desires and the fleshly needs. This is the state of common man today. He lives for the flesh and to fulfill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his mind. He is controlled by Satan, alienated from God. Not subject to the laws of God because the flesh rules. 이제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육신적 필요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는 육신을 위하여 살고 육신 및 그의 지성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사단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육신이 다스리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었다.

As the result, he is dead to God and the things of God and alienated from fellowship. But down deep inside, man needs God and longs for God. David said, As the deer pants after the water brooks, so pant my soul after Thee, O God (Psalm 42:1). I thirst for the living God and such is true of every man. There is that thirst for God.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죽고 그분과의 교제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동경하게 된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나이다(시 42:1).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다.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바로 그런 것이다.

Man is trying to satisfy that thirst with physical things. Madison Avenue recognizes that and they are selling people a bill of goods with the subtle promise that, Hey, this is what you need to really be happy. This will satisfy you. This will bring you that fulfillment that you're longing for and looking for. And they're constantly holding up little bubbles. And men are trading eternal life for glass beads.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을 찾아 구하며 그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메디슨 애비뉴(Madison Avenue)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간교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 물건을 팔았던 것이다: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동경하고 바라던 것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뜬구름 같은 것들을 제시할 것이다. 사람들은 영생을 유리 구슬하고 바꾸고 있다.

Man tries to fill that spiritual thirst for God with emotional experiences. Pleasuremania. Where a person goes their emotions wrung out for a couple of hours at a football game or a baseball game or a basketball game. But all of these things at best only give a temporary kind of respite from the thirst. He's not aware of it for the moment that he's engaged in the activity but quickly the activity is over, quickly the thrill of a new possession fades and the thirst is still there. The thirst goes on. Because only God can satisfy that deep inner need in each of our lives for God. There's no substitute for a relationship with God. 인간은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증을 씻어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미친 듯이 쾌락을 좇는다.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게임을 즐기면서 서너 시간 감정을 달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그런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는 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신속히 끝이 날 것이며 새로운 것을 소유한 감격도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그 갈증은 풀리지 않고 남게 될 것이다. 그 갈증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And Jesus, talking to them concerning this deep spiritual thirst, that thirst for God, that need for God, says to them, Come to me and drink. Jesus is here claiming to be God once again. You need God, you're thirsting for God, come to Me. I can satisfy that need for God. I can satisfy that thirst for God that is deep down inside your being. Come to Me and drink for, 예수께서는 이런 깊은 영적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증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 내게로 오라.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내가 충족시켜주겠다. 너희의 존재 깊은 곳에 내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내가 풀어주겠노라. 내게로 와서 마시며, 그런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라.

He that believeth on me [Jesus said], as the scripture has said, out of his belly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7:38).

Jesus perhaps is referring to Isaiah 44:3, For I will pour water upon him that is thirsty, floods upon the dry ground: I will pour my spirit upon thy seed, and my blessing upon thine offspring. Or perhaps Isaiah 58:11, And the LORD shall guide thee continually, and satisfy thy soul in drought, and make fat thy bones: and thou shalt be like a watered garden, and like a spring of water, whose waters fail not. He that believeth on me, as the scripture sayeth, out of his innermost being there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예수님께서 나는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아마도 이사야 44:3에 대해 언급하신 듯하다.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니면 아마도 이사야 58:11을 가리킨 말씀일 것이다. “나 여호와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Thirsty for God? God will not only satisfy that thirst. He'll not only fill that emptiness but He'll overflow it. The life of the Spirit is an overflowing life. Man who is going around constantly with his clamant cry and thirst not only finds full

satisfaction in Jesus Christ but finds that there is a surplus. It overflows. It's like a well of living water, He said to the woman of Samaria, that is springing up within. And you'll never thirst again. Satisfaction. Complete satisfaction in Jesus Christ.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갈증을 풀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그런 공허를 단순히 채워주실 뿐 아니라 넘쳐흐르도록 하신다. 성령의 생명은 넘쳐흐르는 생명이다. 끊임없이 그런 절박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찾을 뿐 아니라 그런 후에도 남을 정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생명 샘과도 같다 하겠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말이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Again, radical claims. He's a good man or He's deceiving the people. John wrote the gospel some fifty years after this event. Writing now with the years of experience, though at the moment he did not understand what Jesus was referring to. Once the Holy Spirit was given, which Jesus had promised to the disciples, then John realized, He was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It was through the receiving of the Holy Spirit, through his baptism of the Spirit, through this coming upon or the overflowing of the Spirit that John realized He was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여기서 다시 과격한 주장이 나오게 된다. 그분은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0년 후였다. 비록 그 사건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언급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해 보고 나니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단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지자, 요한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성령에 대한 것이었구나. 그분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은 성령 받음을 통해서였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였다. 성령의 강림과 넘쳐흐름을 통해서였다.

What was He saying concerning it? It would be like a river of living water flowing forth, gushing forth out of your life. 그분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너희의 생명으로부터 솟구치는, 넘쳐흐르는 생수의 강과 같을 것이다.

(This spake he of the Spirit, which was not yet; because Jesus was not yet glorified.) Many people therefore,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said, Of a truth this is the Prophet (7:39,40).“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요 7:39,40).

That is, the prophet that Moses had predicted. And there shall arise another prophet like unto myself; and to Him you shall give heed (Deuteronomy 18:15), one of the prophecies concerning the Messiah given by Moses. And when they heard Jesus say this, they were some of them said, This is the Prophet. They had this question before, Could this be the very Christ or the Messiah? This is the Prophet. 이는 곧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그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신 18:15). 이것은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 한 예언들 중의 하나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들 중 더러는 이 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아도 진작부터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렇다.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시구나.

Others said, This is the Messiah. But some said, Shall the Messiah come out of Galilee? Hath not the scripture said, That the Messiah will come from the seed of David, and out of the town of Bethlehem, where David was? So there was a division among the people because of him (7:41-43).

Notice those who took the anti side, those who said He deceives the people were basing their statement upon incomplete and false information. Jesus was of the seed of David. Both Mary and Joseph were descendants of David. He was of the seed of David and He was born in Bethlehem. They didn't know that. They didn't have full information and they were making judgment upon incomplete information which is a mistake that a lot of people make.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거짓된 정보에 기초하여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었다.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윗의 자손이었다. 예수는 다윗의 후사였으며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저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오류이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today who are making judgments concerning Jesus Christ on false information or incomplete information. Isn't it tragic that a person is making a judgment concerning Jesus Christ that is going to determine that person's eternal welfare and yet they don't have enough sense to study the thing out and see if these things be so. Jesus said, You do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in them you think you have life: but they are they which testify of Me. And you won't come to Me, that you might have life (John 5:39,40). But there are people today that aren't even searching the scriptures to see if these things be so.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판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영구적인 운명이 좌우될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가릴 만한 분별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 5:39,40). 오늘날에도,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를 않다.

When Paul went to Berea and preached the gospel to them, they were more noble than those of Thessalonica because they went and they searched the scriptures to see if what Paul was saying is true. They found out it was. Certainly it is not wise to make a judgment until you have all of the facts available to you. Yet so many people are guilty, as were these people, thinking they knew the facts. We knew this man from whence He is. They don't know Him. We know him from whence; no, you don't know Him. You think you know because you saw Him growing up in Nazareth. You assume He was born in Nazareth. You assume that

He's from maybe the tribe of Naphtali or Manasseh, or one of those in the northern area. But no, He is of the tribe of Judah. He is a descendant of David and He was born in Bethlehem. And so division among the people because of Him, and that's always true.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가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살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 자기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양 착각하여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분이 어디서 온 것을 알고 있다고? 천만에 여러분은 그분을 잘 모른다. 여러분은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그분을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여러분은 그분이 납달리나 므낫세 지파, 아니면 북쪽의 어느 한 지파 출신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분은 유다 지파 출신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놓고 사람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실은,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 왔다.

Jesus said, Don't think that I've come to bring peace. I've come to bring a sword. I'm going to divide families. There will be a mother divided against her daughter and a son against the father because the division comes in believing or not believing in Jesus. And oftentimes it brings division within families. And of course, He's talking to the Jews and when a Jewish person would accept Jesus, it would bring a great division within the family to the extent that oftentimes, the family would completely ostracize the member of the family who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 would even hold funeral services and consider them as dead and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There was a division. There's always a division.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칼을 주려고 왔노라. 나는 가족에게 분란을 가져다줄 것이다. 어머니가 딸과 나뉠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와 나뉠 것인데, 그런 분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그로 인해 종종 가정에 불화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그분은 유대인들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다. 어떤 유대인이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집안에는 큰 분란이 발생하게 되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식구를 전적으로 소외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심지어는 그런 식구들의 장례식을 지낸 뒤 그들을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며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분란이, 언제나 분쟁이 발생했던 것이다.

And tonight there is a division. There are those of you that believe that He was a deceiver and those of us who believe that He was more than a good man, He was the Son of God who was sent by God to save us from our sins. And we believe on Him and we have receive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nd we enjoy this blessed overflowing life that comes from Him and believing in Him. 오늘밤에도 분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분을 사기꾼이라고 믿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그분을 선한 사람이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 넘쳐흐르는 생명을 축복으로 받았으며 그분께 대한 믿음을 향유하고 있다.

*Some of them would have arrested him; but no man laid hands on him (7:44).
Then came the officers to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7:45);*

That is, the officers that were sent out to arrest Jesus. They came back empty handed. 다시 말하면, 그 관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냄을 받았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and they said unto them, Why have you not brought him (7:45)?

Why didn't you arrest Him? 왜 그를 체포하지 않고 돌아왔느냐?

The officers answered, Never a man spake like this man (7:46).

They were entranced with the words of Jesus. He speaks not as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He speaks with authority. Never has a man spoken like this man.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혹이 되었다. 그분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

Then answered the Pharisees and they said, Are you also deceived (7:47)?

They were saying He deceives the people. Are you also deceived?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 너희도 속았단 말이나?

Have any of the rulers or of the Pharisees believed on him (7:48)?

Oh yes, yes, some of them have. We are told that many of the rulers and the priests believed on Him but they did it secretly because they didn't want to lose their position in the council. And one of them who was sitting there had co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is come from God: because no man can do the thing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John 3:2). And Jesus taught him the way to be born again by believing in Jesus. Nicodemus. And so they said, Have any of the rulers or the Pharisees believed on Him?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들 중 몇몇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권력자들과 제사장들 중 여러 사람이 그분을 믿고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싶어서였다. 그들 중의 한 사람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한 사람이 밤에 예수께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이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 3:2). 예수께서는 그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셨다. 그는 니고데모였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권력자들과 제사장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라고 말했던 것이다.

But this people who do not know the law are cursed (7:49).

Looking down upon the people from a religious throne. This is what Jesus came to abolish. The establishment of spiritual hierarchy. Jesus came to open the door for every one of us to be able to come to God directly. He is the mediator, He is the go-between. He alone is the go-between between you and God. No one else.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but by Him (John 14:6).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1 Timothy 2:5). I can't go on your behalf. You have just as much right as access to the Father as I do. I go to Him through Jesus Christ. You must come to Him through Jesus Christ and through Jesus Christ, we both have equal access unto the Father. These religious

people looked down. There is a religious snobbery here. And they say concerning those that aren't a part of their little elite group that they were cursed. They don't know the law. 이는 종교적인 보좌에 앉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바로 이런 것을 없애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관료화된 영적 계급주의 말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증보자이며 중재자이시다. 그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할 수가 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요 14:6).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도 한 분이니 곧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딤후 2:5). 내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갈 수는 없다. 여러분에게도 나와 꼭 같이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남을 경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속물근성인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만의 선택받은 소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다.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무시를 했다.

Nicodemus said unto them, (the one that came to Jesus by night, who was one of the religious leaders,) Does our law judge any man, before it hears him, and knows what he is doing (7:50,51)?

He's bringing up a point of law here. They were guilty of violating the law. You could not judge a man until he had first had his say. They have made judgments of Him. They had not given Him an opportunity to answer their issues or their questions. And thus Nicodemus is bringing up a point of order, point of law. Does our law judge a man, before it hears him, or knows what he is doing? 니고데모는 여기서 율법을 인용하며 논쟁하고 있었다. 저들은 율법을 범한 죄가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렸다. 그들은 그에게 그들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질서의 문제, 법적인 하자가 있음을 거론했던 것이다.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기 전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느냐?

They answered and said unto him, Are you also of Galilee (7:52)?

It was a very cutting kind of a thing. 이것은 매우 신랄한 조롱이다.

Search, and look: for out of Galilee arises no prophet (7:52).

That's not correct, either. But that was their statement.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다. 그들이 꾸며낸 말일뿐이다.

And every man went unto his own house (7:53).

Meeting broke up divided. 모임은 해산되었다.

Now we move into chapter eight and that's for next week. We encourage you to study it this week. A lot of interesting things and we see the controversy really developing between Jesus and the Jews, as we move on into chapter eight. 이제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음주에 상고하도록 하겠다. 금주에 미리 공부를 해두기를 바란다. 이제 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흥미진진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점입가경의 논쟁을 살피게 될 것이다.

We pray that the Lord will be with you, bless and keep you in His love, draw you close to Himself. If you are here tonight and you have not received Jesus as your Savior, but you're aware that something's missing in your life. You've been trying to fill that void with maybe physical things or emotional experiences and there's still an emptiness. I would highly recommend that as Jesus said, Just come to Him. For He, He said,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says, out of his innermost being, there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You can know what it is to have an overflowing cup. He is either a good man, the Son of God, or a deceiver. He can't be both. You are either a believer or a non-believer, you can't be both. But to believe in Him is to have eternal life. I would encourage that.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이 만일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빠진 게 있다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내가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공허를 물리적인 것들과 감정적인 경험으로 채우려고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넘쳐흐르는 잔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신자가 되든지 불신자가 되든지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니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택하라고 권고하는 바입니다.